

# 한일 지역간 경제교류포럼2021 개최결과 보고

## 1. 한일 지역간 경제교류포럼 개요

- 목적 :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,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일 양국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공유 및 활성화 방안 모색
- 테마 : 한일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한일 지방간 협력
- 일시·장소 : 2021년 9월 30일(목), 서울특별시 롯데호텔
- 주최 : (사)한일경제협회,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- 규모 및 대상 : 86명
  - 자치단체, 기업, 경제단체, 연구기관 등 한국 58명, 일본 28명

## 2. 주요 성과

-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류 단절과 비대면의 일상화 속에서, 당면 과제인 국제교류 복원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,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
  - 한일 양국간 교류의 기회 제공으로, 사업·지역 홍보와 지역간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
  - 코로나 사태로 엄중한 가운데서도, 한일간 상호협력을 복원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여,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
- 국제교류 현황과 지역 국제전시회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양국 공통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, 협력방안 모색
  - 글로벌 경제환경의 대전환에 따른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해소를 위해, 수도권 중심에서 다극 분산형 지역경제(초광역경제권) 기반 혁신 생태계 강화 모색
  - 행복도가 높은 '지역 만들기'를 위해,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, 지역 경제활성화·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인식을 공유
    - \* 인구감소·고령화 위기 대처, 자매우호도시 교류, 국제전시회(식품전, 관광·물산전, 경주세계문화엑스포), 대구 세계가스총회,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, AI 융복합 광주경제자유구역 협력 등

### 3. 포럼 주요 발표내용

포럼 주요 발표 내용	
(개회사)	
□ 한국 : 한일경제협회 김 윤 회장	
○ 한일 지자체간 200여건의 자매도시, 우호도시 관계 유지	
○ 한일 양국 지역은 서로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생존을 위한 현안들이 쌓여 있기에, 협력은 더욱 긴요함을 강조	
- 서로 더 알고, 좋은 사례를 공부해서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, 한일 우호관계를 다져나갈 것을 제안	
□ 일본 : 나미오카 다이ске 주일한국대사관 경제공사	
○ 한일은 수많은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혜와 베스트 프랙티스의 공유를 기대	
- 인구의 수도권 집중, 젊은층의 도시권 인구 유출, 지역경제 쇠퇴, 국가균형발전 필요성	
(기조연설)	
□ 한국 : 산업연구원(KIET) 김선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	
○ 플랫폼 경제시대의 혁신생태계 구축과 지역산업 육성전략 제시	
-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해소를 위해서 지역경제(초광역 경제권) 기반의 혁신생태계 강화	
- 수도권 중심의 일극형에서 다극 분산형 국가성장전략으로 지역경제·국가경쟁력 제고	
□ 일본 :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마치다 도요지 소장	
○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창생(創生) 활동사례 소개	
- 일본의 인구감소·고령화 동향, 지방소멸·과소지역 대책, 지방창생 추진(마을, 사람, 일자리 창생법)	
(전체포럼)	
□ 한국 :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 외교통상과 권세안 계장	
○ 「세계와 소통·협력하는 경상북도 국제교류」	
- 자매우호도시 교류·다자간 교류네트워크, 경북 11개-일본 18개 지자체 교류, NEAR(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), 경주세계문화엑스포, 제32차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계획	
□ 일본 : 시즈오카현 다카하시 마코토(高橋誠) 서울사무소장	
○ 「시즈오카현의 국제교류 현황 및 전시회 출품 동향」	
- 왕래제한이 초래한 사회(정보부족, 기회 및 체험 부족), 줌 온라인 세미나 및 단편동영상 제작 송출, 충남·제주도와의 국제교류(백제사진전, K-POP 토크 카페, 제주청소년 포럼)	
□ 한국 : 대구광역시 혁신성장국 이현모 세계가스총회지원단장	
○ 「‘가스산업의 올림픽’ 2022 세계가스총회」	
- 수소산업 선도도시, 물산업 도시 등 지역산업 육성이 일자리에 기여, 벤치마킹 기대	
- 제28회 세계가스총회('22.5.23~27, 대구 EXCO), 주제 :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, 90개국·12,000명 참가·350개 전시업체·500명 연사	
□ 일본 : 나가사키현 사카니와 마사후미(坂庭雅史) 서울사무소장	
○ 「나가사키현 서울사무소 및 나가사키현의 한국에 대한 다양한 활동」	
- 한국과의 우호교류(부산, 부산 서구·영도구, 파주, 울주군, 구례군, 강진군),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, 기리스탄 관련 유산, 한일축제한마당 참가 등	

(전체포럼)	
□ 한국 : 새만금개발청 이 범 교류협력과장	
○ 「그린성장과 신산업 중심지로 ESG가 실현되는 새만금 핵심사업 추진계획」	
-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(기후변화 대응,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), 그린에너지 생산·실증 연구단지,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, 탄소제로 스마트 도시 건설 등	
□ 일본 : 미야기현 쓰지이 타쿠(辻井拓) 서울사무소장	
○ 「코로나 속에도 올레로 이어지는 국제교류」	
- 코로나 속에서 올레의 확산 및 정착, 미야기 올레 및 큐슈 올레와 제주 올레를 연결하여 각자 코스를 걷는 모습을 중계하는 라이브 방송하는 등 원격으로 지속적으로 교류	
□ 한국 :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 박가혜 주무관	
○ 「미래를 위한 AI융복합 신산업 허브 광주경제자유구역」	
- 자매우호도시 교류(센다이시, 요코하마시), 광주경제자유구역(미래형 자동차, 스마트에너지, 바이오 의료), AI를 접목한 산업의 일본기업과 제휴-신기술 공동연구 개발 비즈니스창출	
□ 일본 : 오키나와현 신자토 쇼타(新里紹太) 서울사무소장	
○ 「오키나와현의 국제교류 및 MICE 촉진 활동 소개」	
- 국제교류 활동(세계 우치난츠허(오키나와 현민) 대회, 유학생 수용), MICE(국제IT 전시회, 오키나와 대교역회, FAM 투어 등) 유치	
(의견교환)	
○ 어려운 상황일수록 끊임없는 교류가 중요, 한일 상대국 이해를 기대	
- 각각의 지역특성, 강점과 아이디어를 공유, 국제행사·이벤트 유치 노력 평가	
○ 고향납세제(한국 고향사랑 기부금) 경험담, 지역소멸 대처 일자리 창출 공유	
- 기부금의 재해지역 복구 지원사례, 지역 특산물 홍보효과(시즈오카 참치+식칼세트 답례)	
- 지방창생 활동사업은 각 지역 활기와 분위기 조성에 기여	
- 일본 과소지역 대책, 지방소멸에 대한 인상 공유(도쿄 일극화, 지역인재 반출·회수어려움)	
○ 미야기현의 아이리스 오야마(생활용품 기업) 인천 공장, 알프스전기의 광주 공장 설립, 깊은 지역 간 연계	
○ 오키나와 특산품의 한국내 백화점 특판사업 소개	
- 일본 오키나와 백화점 등에서 한국우량제품을 판매	
○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지역 수요와 문제 해결의 비즈니스 개발이 필요	
- 원천기술개발→사업화, 지역 수요·문제해결→비즈니스 모델 개발(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확대 추세)	
○ 지방 자치단체간 교류추진	
- 자매도시, 우호도시 등 결연과 교류 확대	

## 4. 평가

-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참으로 어려운 국면 속에서, 한일 지역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지역의 현실과 분위기를 실감
  - 어려움 속에서도 교류를 지속함으로써, 깊어지는 유대관계 형성과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교환
- 한일관계 악화와 코로나 사태로 국제협력보다 대립의 시대상황 속에서도, 한일 지역간 상호협력을 복원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여,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
  - 한일 양국의 지자체·관계단체·기업이 온·오프라인으로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, 지역협력의 분위기 조성과 상호 교류 촉진에 기여

## 5. 후속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

- 한일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, 지자체·관계기관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, 지속적인 협력 체제구축
  - 백문이 불여일견으로, 지역의 산업과 정책을 체험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, 일본 관계기관의 지역 현장 방문을 추진